

# 정례브리핑

2021.6.28.(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오늘은 통일부가 추진 중인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인도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인도협력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들의 지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주 수요일 6월 30일 오후 2시에 통일부 차관과 이기범 북민협 회장이 공동 주관하는 '2021년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하반기 인도협력 추진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민간 측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는 대북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복지부, 농식품부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고 55개 민간 인도협력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연 2차례 정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체입니다.

이 회의체를 통해서 민간의 정책 제언 등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일부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남

북인도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인도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대북지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추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남북교류협력 범위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인도협력 관련 지자체들과의 소통·협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6월 23일에는 제1차 지자체 인도협력분과 실무협의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 지자체 실무협의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이 내일 6월 29일 화요일에 기초직업훈련 용어해설집을 발간합니다.

기초직업훈련 용어해설집은 현재 하나원에서 운영 중인 간호와 요양, 미용, 요리 등 기초직업훈련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한 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해설지 발간은 탈북민들이 직업훈련 과정에서 겪어온 남북

간 용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림과 사진 등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탈북민들에게 익숙한 북한용어 등을 함께 사용해서 여러 직업용어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도는 탈북민의 눈높이에서 탈북민 지원정책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탈북민들의 필요에 조금 더 밀착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끝으로 추가 기타 일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6월 30일 오전 8시에 서울시 의회 초청으로 서울시 의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금주 주요 일정과 통일부 사업추진 현황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는 목요일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데요.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북한이

100주년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려는 움직임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답변>** 질문 주셨던 대로 올해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7월 11일은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0주년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올해 초부터 최고지도자 간의 친서교환이라든지, 사진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기념행사 중에는 북한과 중국대사들이 서로 노동신문과 인민일보에 기고를 한다든지, 중국에서 외교와 관련된 좌담회를 연다든지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동향들도 일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올해 이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북·중 간의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주요 기념일, 특히 10주년, 20주년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 계기에는 상호 고위대표단을 교류하는 등의 동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대표단 교류동향 등에 관련해서 지금 확인해 드릴 만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최룡해 비서가 항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했듯이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혹시 코로

나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중 간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포함한 인적·물적 교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중 국경동향도 국경봉쇄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도 이와 같은 인사교류 등을 진행하는 데 주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중 간에 주요 기념일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등 여러 제반 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위대표단 교류 등의 것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